

사업결과보고서

2013 하반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글로벌협력사업 II

EU·영국 자원봉사 정책 및 현황 조사

2013.11.



본 연구보고서는 2013 하반기 안전행정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이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2013-7)' 글로벌협력(정책영역5)과
연구와 평가(정책영역4)의 실행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안전행정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5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7
2. 조사 과제	8
3. 조사 방법	9
II. EU 자원봉사정책과 CEV	
1. EU의 자원봉사정책과 회원국 자원봉사 현황	11
2. EYV 2011 계승을 위한 정책 아젠다	16
3. CEV(EU자원봉사센터)	20
III. 영국 자원봉사정책과 NCVO	
1. 영국 시민사회 역사와 현황	24
2. 영국 시민사회청(OCS)과 자원봉사정책	28
3. 영국시민단체협의회 (NCVO)	32
4. 영국자원봉사연구소 (IVR)	39
IV. EU 및 영국으로부터의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43
2. 민간기구에 대한 시사점	44
3. 연구와 지식확산에 대한 시사점	45

요 약

사업명	2013 하반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글로벌협력사업 II (연구보고서 제목 : EU·영국 자원봉사 정책 및 현황 조사)
수행기관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후원기관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사업기간	2013년8월~12월(5개월)
조사기간	2013년10월6일~10월11일(5박6일)
조사자	책임연구원 : 정진경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송정안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보조연구원 : 신수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대리)
사업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13~7) (5영역 글로벌협력, 4영역 연구와 평가)
산출물	조사결과보고서 1부
조사방법 연구내용	방문 면접 조사 (European Volunteer Center,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Office for Civil Society(영국정부))

EU·영국 자원봉사 현황 및 정책 조사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13-7)(이하,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5-2 과제에 해당하는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자원봉사계의 질적 제고'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5-2 국제교류 정책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사업,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해외조사연구사업, 국제교류 기반 형성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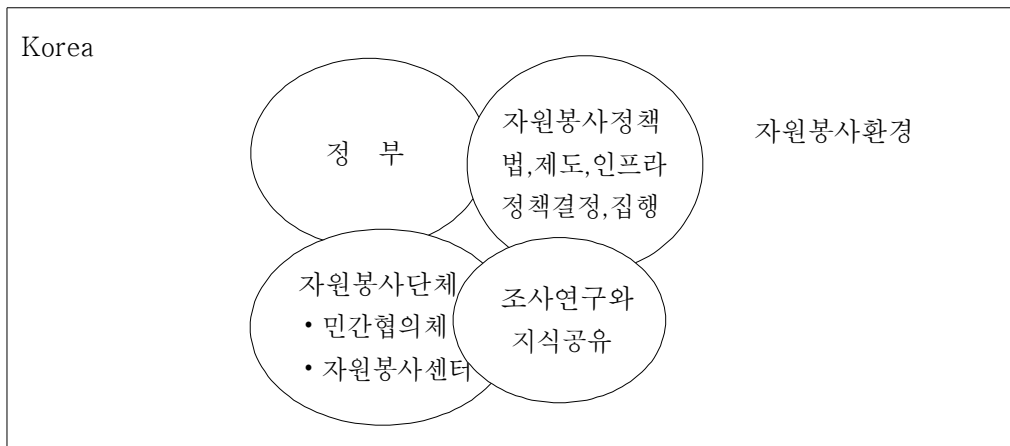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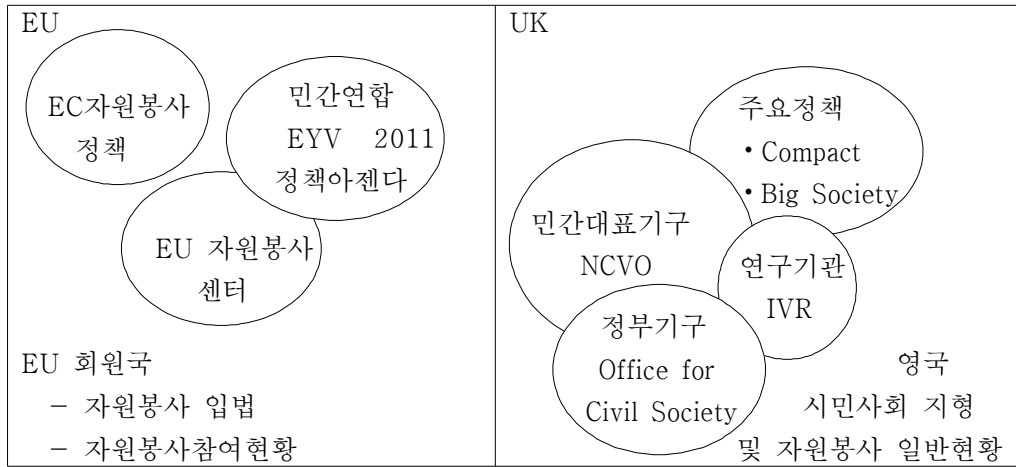
- ① 한-EU 자원봉사 정책 교류의 필요성 : EU는 가장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자원봉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유럽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아 EU 차원의 자원봉사 정책과 법률, 유럽 국가 통계, 연구 성과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한편 한국이 자원봉사 중앙기구들이 중앙단위 자원봉사 기구의 역할에 대한 모델로서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다.
- ②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자원봉사정책의 필요성 : 전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영국 자원봉사정책의 변화가 유의미하다고 보여 졌고, EU의 여러 국가의 대응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변화와 자원봉사 정

책 변화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정부의 시민사회정책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변화하는 정부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자원봉사계 및 시민사회 반응과 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민관 거버넌스 방향성을 거시적 안목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 ③ 복수의 자원봉사 중앙기구 효율성 논의 : 2013년 1월 영국시민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가 영국중앙센터(Volunteering England)를 흡수통합 함으로써 영국이 미국에 이어 단체-센터 통합사례가 되었다. 정부지원 효율성과 효과성 저해하는 한국 자원봉사계의 단체-센터 분절현상, 복수의 중앙기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의 통합 배경과 정책 조사 필요하다.

2. 조사 과제

- ① 영국정부 시민사회청 (Office for Civil Society)
 - 영국 카메론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 (the Big Society)
 - 시민사회 정책 변화 속에서의 자원봉사정책의 변화
 - 자원봉사와 사회봉사(civic service)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영국의 민관협력 전략 (정부의 관점)
- ② 영국시민단체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영국의 민관협력 전략 (민간의 관점)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중장기과제
- ③ 영국자원봉사연구소(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 Volunteering Impact Assessment Toolkit 개발과 활용, 평가
 - 자원봉사활동사업·프로그램의 정의와 자원봉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
 - 최근 연구 동향 및 영국자원봉사계의 중장기 연구과제
- ④ EU 자원봉사센터(브뤼셀, 벨기에)
 - 유럽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EU자원봉사센터의 대응
 - EU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정책, 국별 정책과의 협력 및 연계
 - EU 회원국 자원봉사 현황



3. 조사 방법 : 해외기관 방문 조사

1) EU Volunteer Center (EU자원봉사센터)

- ① 소재지 : 벨기에, 브뤼셀
- ② 홈페이지 주소 : www.cev.be
- ③ SNS : www.facebook.com/CEV.volunteer, @VolunteeringCEV (twitter)
- ④ 핵심사업 영역 : 정책, 지식 보급, 파트너십, 역량강화
- ⑤ 인터뷰 (10/7) :
 - Gabriella Civico (CEV Director)
 - Tuomo Salakari (Staff)

2) NCVO (영국시민단체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 ① 소재지 : 영국, 런던
- ② 홈페이지 주소 : www.ncvo.org.uk
- ③ 핵심사업 영역 : 자원봉사, 사회적 기업, 공공정책, 파트너십, 역량강화
- ④ 인터뷰 (10/9):
 - Mike Locke(Head of Volunteer Development)
 - Alan Strickland(Head of Volunteer Development)
 - Kristen Stephenson(Volunteer Management and Good Practice Manager)

3) IVR (자원봉사연구소,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 ① 소재지 : 영국, 런던
- ② 홈페이지 주소 : www.ivr.org.uk
- ③ 핵심사업 영역 : 자원봉사 정책 연구, 현황 조사, 평가 등
- ④ 인터뷰 (10/9):
 - Dr. Justin Davis Smith(Executive Director of Volunteering and Development)
 - Nick Ockenden(Head of the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4) OCS (시민사회청, Office for Civil Society)

- ① 소재지 : 영국, 런던
- ② 홈페이지 주소 :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abinet-office
- ③ 핵심사업 영역 : 시민사회 정책, 자원봉사,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지원, 공공서비스
- ④ 인터뷰 (10/10):
 - Eve Sadler (Policy Advisor, Social Action Team)
 - Su Arnall (Policy Advisor, Social Action Team)

II. EU자원봉사정책과 CEV

1. EU의 자원봉사정책과 회원국 자원봉사 현황

1) European Commission의 자원봉사 정책

o 자원봉사정책의 목적

- 자원봉사활동은 정의, 연대, 통합과 시민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 유럽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핵심요소임을 발견하고,
- 국경을 초월한 '시민의 유럽'(Citizen's Europe) 건설을 위해,
-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 전역과 각국 내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함.

o EC 자원봉사정책의 기본 원칙

- 보조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 견지 : 각 회원국들의 문화적, 지역적 전통과 조화를 이루도록 EC 차원에서의 단일한 자원봉사정책 모델을 권장하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을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책 영역과 연계 : 평생학습, 지역개발, 스포츠, 국경초월 자원봉사 등.

o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 European Commission : EU 의 전반적 이익을 대변하며 EU 의회와 위원회에 법률제안, 유럽연합의 정책 전달과 집행, EU 법 집행 등.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각 회원국 대표단으로 전달
- EU Volunteer Center(CEV), Association of Voluntary Service Organizations(AVSO) : 독립적인 민간기구로서 협력함

2) European Commission의 자원봉사 지원 프로그램 :

- o Youth in Action (청소년 자원봉사)
- o Europe for Citizen (시민을 위한 유럽)
- o Lifelong Learning Program (평생 학습 프로그램)
- o European Voluntary Humanitarian Aid Corps (2012 설립)

3)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의 자원봉사 현황¹⁾

-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자원봉사의 전통과 개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율과 환경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40% 이상 참여율 (성인, 이하 동일) :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 30-39% 참여율 :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 20-29% 참여율 : 에스토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 10-19% 참여율 : 벨기에, 아일랜드,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 10% 미만 :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 중앙·동유럽의 경우 2차 대전 후 전후 복구 맥락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초까지 자원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형성 중임.
- 그리스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들이 가족, 친구, 지인들을 기반으로 한 상호부조를 통해 이루어져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음.
- 헝가리와 키프러스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법적 프레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참여율은 낮음.
- 지역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는 특히 지방정부 체계나 지역의 독립성이 강한 곳에서 중요하며,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영국과 독일이 유일하게 정기적인 공식 자원봉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2009년 첫 시도를 한 적이 있음.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헝가리 등 별도의 연구조사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있음. 각기 다른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서로 통용되는 유럽 기준은 아직 없음.

4) 자원봉사 법률들, 인프라, 정부의 역할²⁾

1) GHK(2010). Volunteering in the European Union.

2) CEV(2012). Volunteering Infrastructure.

○ 독일 :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명확한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있음. 2010년 국가 자원봉사전략을 채택하여 자원봉사 진흥과 자원봉사 정책 개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자원봉사 전반을 총괄하는 기본법은 없음. 2011년 모든 세대를 위한 국가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도입됨. 300개의 자원봉사기구와 센터, 200개의 노인센터, 212개의 자조연락망, 500개의 다세대센터, 237개의 지역재단 등이 자원봉사 인프라를 형성함.

○ 영국(잉글랜드) : 2004년 Volunteering England가 발표한 'Building on Success'는 자원봉사 인프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함. 2011년 영국 시민사회청이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발표, 기존의 42개 지원 단체를 2014년까지 12개로 축소하기로 함. 이러한 파트너십 구조조정 속에 자원봉사 인프라도 영향을 받고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다양한 법률들이 자원봉사에 연계되거나 함의를 가지고 있음(Police Act(1997), National Minimum Wage Act(1998),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2006) 등). 영국의 경우 지역에 약 300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며 독립적인 민간단체이거나 더 큰 협의체의 지역 기구인 두 경우의 혼합으로 네트워크가 존재함.

○ 아일랜드 : 자원봉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최근 통과된 '착한사마리아법'은 응급상황에서 행해진 자원봉사활동에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짐.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들은 환경·공동체·지역부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요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프랑스 : 자원봉사를 국가와 독립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정서로 인해 민간에 자원봉사에 대해 국가가 법률로 관여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이러한 국가적 분위기는 스웨덴에서도 관찰됨.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세금과 운영에 대한 법률은 유지되고 있음.

○ 이탈리아 : 1991년 자원봉사기본법(Italian National Framework Law on Volunteering) 제정, 자원봉사를 '직간접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대의 목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속한 단체를 통해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함. 한편, 2001년 헌법 개정은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시민, 단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인식 변화에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제118조 조항은 공익의 생산이 단지 공공 기관의 특별한 역량이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는 것임을 명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제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벨기에 : 2005년 자원봉사자의 권리에 관한 법(Law on the Rights of the Volunteer)이 통과, 2006년에 발효됨. 실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배상과 보험에 관한 규정은 2007년부터 실행. 불어사용 지역(Flemish)에는 하나의 자원봉사센터(Flemish Volunteer Center)가 주요 광역행정구역의 자원봉사 지원 역할을 함. 이는 민간 비영리기구로서 모든 영역의 자원봉사단체들을 대상으로 함. 자원봉사 법률에 대한 자문,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Flanders)에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자원봉사지원센터가 모든 플랜더스 지역 내 행정구역에 있으며, 기초단위 지역에도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음. 플랜더스 지역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민영과 정부 운영이 혼재되어 있음. 벨기에의 모든 센터들의 연합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플레미쉬 자원봉사센터가 모든 센터들의 협력을 조정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스위스³⁾ : 자원봉사 관련 입법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한 가지 예외로 직장인(30세 미만)이 1년에 1주일 1회 문화 혹은 사회 기관에서 컨설팅과 같은 무료 봉사를 위해 휴가를

3) EU 가입국 아님.

낼 수 있는 법은 통과됨(Law on Youth Vacation). 그러나 여러 시행상의 문제로 널리 적용되고 실제 활용되는 제도는 아님. 많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과 활동하는 민간기구들이 존재함.

○ 오스트리아 : 2011년 자원봉사에 관한 법이 통과, 2012년 발효됨.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없으며 민간기구로서 현재 9개의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가 있음. 가장 큰 자원봉사단체는 '적십자'와 '카리타스'임.

○ 그 외 독립적인 별도의 자원봉사 법률이 존재하는 국가 : 슬로베니아(2011), 몬테네그로(2010), 몰도바(2010), 마케도니아(2010), 체코(2002), 크로와티아(2007), 포르투갈(1998), 스페인(1996), 루마니아(2001), 폴란드(2004), 헝가리(2005).

2. EYV 2011 계승을 위한 정책 의제

EU는 2011년을 유럽 자원봉사의 해로 선포(European Year of Voluntary Activities, EYV 2011)하였으며 EU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30개의 유럽 민간단체들이 이를 계승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을 형성함(EYV 2011 Alliance Policy Agenda on Volunteering in Europe, P.A.V.E).

1) P.A.V.E. 정책의 방향

-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기반 형성
- 자원봉사의 질적 제고
-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
-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

2) 주요 영역 및 내용

- 질적 자원봉사 (quality volunteering)
 - 질적 자원봉사의 정의 : “자원봉사는 긍정적 영향력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과 절차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며, 이 때의 영향력은 전체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자원봉사는 안전하고 자유롭고 튼튼한 환경에서 실행되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질적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강화되고 자원이 제공되어 함.
- 법률틀 (legal framework)
 - 자원봉사 참여에의 자유,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와 사회적 보호를 위한 권리 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에서 제안됨.
 - 자원봉사 참여에의 자유 (EU) : 모든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하며, 자원봉사는 강요되어서는 안 됨.
 -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EU+회원국) : EU와 회원국들은

자원봉사에 대해 공통의 접근을 채택해야 함.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회원국) :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 중 적절한 사회적 보호(건강, 상해보험 등)를 받아야 하며 각국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실업기간 중 행해지는 자원봉사가 실업 및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세제 혜택 (EU+회원국) :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활동비(실비)는 소득세 부과에서 제외되어야 함. 자원봉사활동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야 함. 자원봉사자와 함께 활동하는 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전액 면세를 해야 하고, 기부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함.
- 비자 이슈 (EU+회원국) : 제3국의 국민들이 EU 영토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 자원봉사자 신원조사 (회원국)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원봉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원봉사 등 반드시 필요한 특정 경우에는 반드시 자원봉사자 신원조회를 실행해야 함. 특정 경우에 행해지는 필수 신원조회는 적절한 시간이 걸려야 하며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자가 일하는 기관에게 비용이 전가되어서는 안 됨.
- 기업 자원봉사 (회원국) : 기업이 직원들로 하여금 재난구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들이 필요함.
- 자원봉사 가치의 법적 인정 (EU+회원국) : 정부가 특히 보건과 사회 영역에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률적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법률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EU+회원국) : 자원봉사 정책, 실행,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들의 법률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자원봉사 헌장 (EU+회원국) : EU 차원에서 자원봉사 헌장을 채택하고 각국이 자원봉사 정책을 만들고 입법하는 데 기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원봉사 헌장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 자원봉사자의 권리, 자원봉사자의 의무, 자원봉사단체의 의무와 권리, 국가의 의무를 포함해야 함.

- 자원봉사 인프라 (volunteering infrastructure)
 - 자원봉사 인프라는 자원봉사 관련 단체(광범위한 시민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비영리, 부분적 비영리기관 모두를 포함)와 자원봉사 지원 단체(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네트워크, 자원봉사 개발 기관)을 포함하며 국내, 지역, 유럽, 국제 모든 차원을 망라하는 것임.
 - 자원봉사 인프라는 유럽 아젠다2020을 달성하는 데 다음과 같은 영역을 통해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유럽의 모든 시민들의 자원봉사에의 접근성
 - 자원봉사 경험과 서비스의 질
 - 자원봉사 공급과 수요 관리
 - 자원봉사를 통한 학습과 기술 개발
 - 빈곤 감소와 사회 통합
 - 자원봉사로 인한 서비스와 활동의 부가가치
 - 사회통합과 사회적 가치 생산
- 자원봉사 인정 수단 (recognition tools)
 - 자원봉사 인정의 유형 :
 - 특정인으로부터의 활동에 대한 인정
 - 특정인으로부터의 단체 소속에 대한 인정
 - 소속단체나 활동처로부터의 활동에 대한 인정
 - 소속단체나 활동처로부터의 소속에 대한 인정
 - 자원봉사 인정의 레벨 : 개인, 단체, 국가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짐
 - 자원봉사 인정도구와 증빙의 방법 : 증서 발급, CV에 카테고리화, 자기평가, 타인 평가,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포트폴리오, 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공식 인정
- 자원봉사의 가치 (value of volunteering)
 - 개인에 대한 가치 : 자신감, 자존감, 기술과 능력 개발, 소속감, 시민 의식 등
 - 지역에 대한 가치 :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량으로서의 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 건강한 공동체 형성 등
 - 사회에 대한 가치 : 연대, 사회적 자본 형성, 사회통합 등

- 경제적 가치 : 경제적 가치는 가시적인 척도로 자원봉사의 신뢰도를 높여줌
- EU 회원국 정부는 이러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통해 자원봉사가 필수적인 사회적 활동임을 인정하고 활성화해야하며 모든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원봉사와 고용 간의 연계성과 자원봉사활동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해야함.
- 시민사회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측정에 기여해야 하며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단체 소속감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 그들의 활동과 가치를 인정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이 관련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되도록 하며 자원봉사 가치를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문서화가 동반되는 명확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야함.
- o 직원 자원봉사 (employee volunteering)
 - 직원 자원봉사는 유럽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원봉사 영역임.
 - 직원 자원봉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사회의 경제적 환경은 자원봉사에 자원, 기술, 재원, 창의성을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임.
 - 내부 CSR는 자원봉사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효과적임.
 - 기업 자원봉사는 기술기반 자원봉사의 장점을 극대화함.
 -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인적자원을 활용한 CSR은 홍보효과가 큼.
 - 자원봉사 영향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되어야 함.
 -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매우 중요함.

3. CEV (EU Volunteer Center)

1) 기관 개요 :

- 1992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원봉사센터 협력으로 벨기에 법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창립함. European Commission에서 독립적인 순수 민간조직임.
- 유럽연합 전역 80개의 회원조직이 있음(전국자원봉사센터, 지역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지원기관 등).
- 유럽연합 전역 80개의 회원조직이 있음(전국자원봉사센터, 지역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지원기관 등).
- 운영 체계 :
 - o 사무국 : 4명의 직원으로 구성 (사무총장 포함)
 - o 이사회 : 6명의 이사로 구성
- 자원 및 재정 현황 :
 - o 자원은 European Commission에서 50%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회원들의 기부, 행사 때 비회원 참가비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됨.
 - o 법적으로 모금은 가능하나, EU 네트워크에서 fundraising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함. EU수준(EU Level)에서 펀딩이 가능한 후원기관이란 EU 외 후원처를 찾기 힘 듬. 모든 다른 재단이나, 기업, 기관들은 EU수준이 아닌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기반하고 후원을 함. 예를 들어, 독일기관은 독일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기업은 그 기업이 있는 지역에서 기부를 받음. EC를 제외한 다른 기관, 기업, 재단들이 거시적 수준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움.

2) 주요 사업 및 기능 :

- EU 차원의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참여
 - o 2010 유럽의 해 빈곤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제2차 연례회의 참여
 - o 자원봉사의 해(2011 EYV) 기념 및 계승 관련 사업 : PAVE(유럽 자원봉사 정책 아젠다) 형성 참여, 아젠다 번역 및 유포, PAVE 실행
 - o '2012 노인과 세대통합의 해' 캠페인, 자원봉사의 역할 옹호

- o '2013 유럽시민의 해' 캠페인 참여
- 정책 및 옹호 기능 : 자원봉사를 통한 학습 인정, EU 인도적 지원 봉사단, 유럽 자원봉사 조사사업, EESC(유럽 경제사회위원회) 회원 활동, CSR과 자원봉사연계, 해외자원봉사(cross-border volunteering).
- 지식 공유 : 커뮤니케이션도구집 개발, 자원봉사에 대한 각종 문서 생산 및 연구결과 공유(유럽 각국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 공유, 코펜하겐 메시지, 자원봉사 측정에 대한 연구, 스포츠 자원봉사 등)
- 파트너십/네트워킹 : 회원조직 외 European Commission, 유럽 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UNV, 존스홉킨스대학, IAVE, 적십자, 카리타스 등.
- 훈련 및 역량 강화 : REVEAL 사업(자원봉사 효과성 제고 사업), 자원봉사관리 훈련, NETA 사업(사회보건서비스 영역에서의 자원봉사를 활용한 혁신과 사회개발), 기관방문조사사업 등

3) European Commission과 CEV와의 관계

- CEV는 EC로부터 50%의 운영보조금을 받음.
- 2011년 이래 자원봉사 정책에 관해 EC의 여러 부서들과 논의 중임. 핵심 부서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영역별(스포츠, 청소년 등) 관련 부서와 소통하는 점은 CEV 입장에서는 비효율성을 낳고 있음. 학습과 공유의 차원에서도 자원봉사 정책을 총괄하는 곳을 선호함.
- CEV의 모든 일은 아젠다를 바탕으로 EC의 전문가 그룹 및 자문단과 함께 협업함.
- CEV는 EU의 목표와 상호적이며 EU의 목적에 맞추기 위한 목표를 만들지는 않음. 상호문화학습, 자원봉사개발 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협력함.

4) CEV의 주요 협력 파트너 현황

- CEV의 사업과 여러 활동은 회원기관들을 대상으로 함.
- 또한 CEV의 회원기관들은 CEV활동의 주된 동기를 형성함.
- CEV는 EU와 회원기관들 사이 정책과 서비스의 통로가 됨.
- 또한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 Economic Social Committee, 여타 다른 유럽 기구들과 정책적 협력을 함.
- 국가들의 자원봉사센터들과도 협력함

5) 유럽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CEV의 의견

- 모든 국가가 국가 수준에서의 자원봉사센터를 갖지는 않음.
- 많은 나라들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나 형식과 양상이 다양함.
- 예를 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이 아닌 중범위 지역차원의 것임. 그리스,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에는 전국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지 않음.
- 유럽에서 보통 자원봉사센터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공공재정으로 지원되고 때때로 사무실을 제공받거나, 직원의 급여를 제공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음.
- 경제위기 이후로 단체나 기관들의 funding은 늘어나는 반면 공공 재정지원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 예산 삭감에 따라 자원봉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이슈가 되고 있음.
- 자원봉사 참여자 수의 감소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나, 자원봉사자수의 변화 측면에서 예산삭감에 따른 자원봉사자 축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짐. 하지만 예산삭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원봉사 개발, 훈련, 질적 관리 포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연쇄 작용을 일으킬지는 예측할 수 없음.
- 자원봉사센터의 이런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CEV는 이러한 문제가 자원봉사 센터가 주요하게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의 질과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이해키시려고 노력함. 또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조직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함.
- 센터에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여전히 독립적 존재임. 또한 정부는 이런 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봄. 다만 유럽의 경우 센터 설립의 아이디어나 동기는 시민사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6) 자원봉사 관련법의 필요성에 관한 CEV의 입장

- 자원봉사 관련법의 필요성은 각 국가의 특성에 달려 있음.
- 영국의 경우 자원봉사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자원봉사 개념이나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화되지 않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그리스의 경우 자원봉사 관련법도 없음. CEV는 그리스의 특성을 볼 때 그리스에는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자를 가시화하기 위해 법제화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

7) EU 자원봉사의 당면 과제

- 회원국에 통용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정의와 자원봉사 통계 수립
- EU 회원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교 가능한 통계 필요 (ILO 및 대학연구소와의 협력 진행 중)
-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가 저조하여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

Ⅲ. 영국 자원봉사정책과 NCVO

1. 영국 시민사회의 역사와 현황

1) 영국 시민사회 전통은 세 가지 원류를 가짐. 첫째, 로마법의 영향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유 시민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의미에서의 사회, 둘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구빈법(Poor Law Act, 1601)', 셋째, 15세기 고전 연구에서 촉발된 고대 그리스의 '시민성'임.

2) 17세기 이후 로마법 전통에 따른 '사회' 개념이 영국의 정치와 법률에 널리 퍼져나감. 홉스와 로크가 시민사회 구성원을 국가 혹은 정체의 피지배자가 되기로 계약을 맺은 재산 소유의 개인들이라고 생각한 지적인 배경은 로마법 전통에서 나옴. 국가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회 개념은 명예혁명(1688) 이후로 더욱 대두됨.

3) 18세기 아담 스미스는 '사회(Great Society)'를 재화와 서비스의 계약적 교환관계가 성립되는 경제의 세계로 지칭함. 한편,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으로 18세기 영국은 연민과 자선의 가치가 확대되어 빈곤 감소, 교육, 직업, 아동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도덕적 접근이 널리 퍼지게 됨.

4) 19세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자원결사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특히 이러한 자원단체들의 생성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 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목적으로 중산층 계급에 의해 이루어졌음. 한편, 점점 노동 계급의 자조 그룹들도 생겨났으며 노동조합, 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을 포함함. 때로 이러한 자원단체들은 이 당시 여성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되기도 했음.

5) 19세기 영국은 다양한 사적 자원 결사체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회(societie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자원적이며 자율 규제로 이루어지는 '사회' 개념은 19세기 영국에 널리 퍼져있었음. 그러나 집단적 단일체나 영역으로의 '사회'는 아니었고 개별 결사체들을 각각 하나의 '쏘사이어티'라고 명명한 것으로 오늘날의 현대적 '사회(society)'의 개념과

같은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6) 19세기 초 자원단체들의 활동에 정부가 지원을 시작함. 정부 보조금의 형태로 19세기 말까지 약 2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19세기 중반 무렵은 정부가 자선단체들에 자격 심사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지원과 함께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임. 이와 함께 점점 증가하는 자원단체들의 수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규제 수준 이슈를 불러옴.

7) 1850년 왕립위원회는 부실한 자선단체들을 평가하고 1853년 Charitable Trust Act(CTA)를 제정, 1860년 법에 따라 자원위원회를 설립하였음. 정부는 계속해서 시민사회 영역의 실패 가능성에 대응하고 Charity Organization Society(COS)를 설립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CTA는 1960년 Charities Act에 의해 대체됨.

8) 20세기 초 영국은 보수당에 의해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됨(National Insurance Act, 1911). 이 시기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도 활발해짐. 1904년 Guilds of Help(COS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 창립되고 1919년에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의 전신)이 창립되어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협력을 제고하고 촉진시킴.

9) 1·2차 대전 사이와 전후 시민사회 영역은 더 확대되었고 시민단체의 규모와 전문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는 이전보다 줄어들게 됨. 또한 사회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적 수단으로서보다는 정부가 다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됨.

10)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영국 보편적 복지 형성은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침. 보건, 고용, 교육 등의 국가 복지의 확대는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나란히 가기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이어 확대하는 쪽으로 역할을 잡아가게 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음.

11) 또한 정부 복지의 확대는 단체들이 사회변화를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에의 여력을 주었고 정부 복지 체계가 다 포괄하지 못하는 특수 사항과 특수 그룹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함. 1940-60년대는 특히 국제개발과 스포츠 영역에서의 시민단체가 증가하였음.

12) 1970년대 들어 정부의 확대된 보편복지가 한계를 보이면서 정부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다시 커뮤니티 개발 영역에서 특히 도시 문제와 인종 갈등의 문제에 대한 자조그룹들과 상호부조 단체들이 재등장하기 시작함. 이러한 경향은 1979년 영국 보수당 정부와 만나 정부 공적 역할의 감소로 이어짐. 이러한 정부 역할의 감소는 시민단체들에게는 확대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복지 축소로 인한 반감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13) 1980년대 경제가 불명확하던 '자선 영역(charity sector)'에서 변화하여 '자원 영역(voluntary sector)'이 점증적으로 적법성을 띠며 형성되어 감. 1978년 Wolfenden Committee에 의해 발표된 'the Future of Voluntary Organizations'를 따라 정부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 영역이라고 명명된 시민사회를 통해 점차 국가중심 복지체계에서 혼합 복지경제로 전환해가도록 함.

14) 1990년대는 영국 노동당이 '컴팩트(the Compact, 1998)'를 통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맺음. 영국은 법이 아닌 합의의 형태(Compacts)로 시민사회와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발상은 NCVO의 시민사회(voluntary sector)의 미래에 관한 위원회에서 제안된 '협약' 개념에 의한 것이었음. 노동당이 이 개념을 채택하였고 'compact'이라는 명명을 통해 실현시킴. 향후 블레어 정부의 핵심 비전이자 정치 철학이었음.

15) 컴팩트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서비스 제공과 정책 활동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시민단체에 다년 기준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무조건적 정부보조금에서 계약 베이스 지원으로 시민단체 운영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음.

16) 컴팩트는 여러 차례의 평가를 거쳤으며 2005년 영국 내부무(Home

Office)는 컴팩트의 역할을 시민사회 강화와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들 간의 더 나은 연계 진흥이라고 규정하였음. 규칙과 규정들의 적용에 어려움이 보고되고 해석이 불분명한 점들이 있었고 옹호 활동보다는 서비스 관련 계약이 더 많아지면서 서비스 제공 역할과 옹호 역할 사이의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도 내포하고 있었음. 전체적으로도 단체들의 총수입에서 정부와의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이를 추구하는 추세가 형성됨.

17) 2000년대 초반 경제와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사회적 기업(social entrepreneur)이 시민사회에 등장, 2006년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분과와 '공동체 활성화(active communities)' 분과가 합쳐지면서 영국 '제3섹터청(Office of the Third Sector)'이 생겨남. 이는 2010년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로 변경됨.

18) 2010년 이래 시민사회 정부정책은 '큰 사회(Big Society)'를 표방함. 보수당 정부의 의제로서 시민사회 활동과 사회통합과 포용을 목표로 하며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진전이자 다음 단계로 설명됨.

- 공적서비스 전달의 다원화 강조, 사회투자, 지역개발 강조로, 규모 작은 사회 혁신적 지역기반단체 및 사회적 기업 중심 지원
- 시민사회의 민간 시장 섹터에 더 관여할 것을 강조(기업, 개인, 후원금 모금 등)
- 2011~2015기간 3백만 파운드 삭감으로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및 규모가 큰 단체에 타격. 직원감소, 서비스규모 축소, 문을 닫거나 합병사례 증가

2. 시민사회청(OCS)과 자원봉사 정책

1) 영국 자원봉사정책은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산하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에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음. 자원봉사 정책은 시민사회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서 현재 '큰 사회 정책' 일환으로 기획·실행되고 있음.

2) 영국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의 전체 내부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시민사회 장관 : Nick Hurd (Minister for Civil Society)
- 시민사회청장 1인, 총괄 국장 1인
- 이하, 다섯 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음
 - Big Society Policy & Analysis
 - Public Services
 - Social Investment & Social Enterprises
 - Charities & Sector Support
 - Social Action (자원봉사 담당 부서)

3)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부서 : 지역 활성화 정책, 중앙정부와 컴팩트, 공공서비스 개혁, 공공서비스 문제해결 등

4) 사회적 투자 및 사회적 기업 (Social Investment & Social Enterprises) 부서 : 사회적 투자 활성화, Big Society Bank 사업 추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5) 자선단체 지원 (Charities & Sector Support) 부서 : 자선단체법 관리 및 실행, 역량강화 지원, 섹터간 파트너십 관리 및 증진 등

6) 사회 활동(Social Action) 부서 : 자원봉사, 기부, 청소년자원봉사, 국가봉사단, 공동체 활동 등

7) 사회 활동 (Social Action)은 'Center for Social Action(사회 활동 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센터는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에 속해있으며 시민사회청 다른 부서, 다른 중앙 부처들, 그 외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함. 시민사회 파트너로는 Nesta와 함께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음.

8) 영국의 자원봉사 정책은 '사회 활동'의 한 영역이면서 아래와 같은 광범위한 영역들을 포함하거나 연관되어 있음. '사회 활동'은 활동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창조하는 행위라고 정의됨.

- 개인 또는 함께 일하는 그룹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
- 법에 규정되지 않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 서비스
- 타인, 개인,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선을 위한 서비스
- 사회적 가치와(또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서비스
- 시간과 돈의 기부를 포함하는 서비스

9) '사회 활동(social action)'의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건강한 노화(Ageing well) :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잘 살아가며 서로 연결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 건강(Health):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을 결집
- 청년들의 잠재력(Young potential): 청년들이 그들의 삶속에서 더 좋은 결과와 성취를 이루기 위한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잠재력을 자유롭게 함
- 안전한 공동체(Safer Communities):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안전을 향상시키기
- 번영(Prosperity): 생활비용을 줄이고 실업률을 줄이는 등 성장을 만들어 내면서 더 부유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10) '사회 활동(social action)

' 핵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Community Organizers :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적 훈련·개발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의 역할 :
 -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음
 - 공동선을 위해 함께 행동하기 위한 그들의 힘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지
 - 지역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그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
- Community First : Community first는 새로운 community group

과 기존의 community group에 8천만 파운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커뮤니티의 강점과 그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더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돕는 것에 목적이 있음. 프로그램은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 The Neighbourhood Match Fund : 3천만 파운드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가장 가난한 지역을 위해 쓰임. 커뮤니티는 그들 지역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패널들을 구성함. 이것은 짝을 이루는 자금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부터 조달되는 1파운드는 기부로부터 조달되는 비슷한 양과 짝을 이뤄야만 함. 기부는 현금, 서비스, 무료물품, 자원봉사 시간으로 할 수 있음.
- The Endowment Match Challenge : 개인과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에 짝을 이루기 위해 5천만 파운드를 제공. 받아들인 기부금은 정부의 투자에 의해 짝을 이루게 될 것임. 민간과 정부의 투자 비율은 1:2로 예정.
- o VInspired : VInspired는 젊은이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선단체. 이벤트나 페스티벌 자원봉사에서부터 관심분야, 프로젝트, 기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각종 캠페인 및 자원봉사자 시상상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특히 젊은이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장려함.
- o National Citizenship Service : 이 프로그램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16~17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 이것은 해당 청소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동안 그들의 삶과 일을 위한 기술을 쌓는 것을 도움. NCS는 봄, 여름, 가을에 각각 6주 동안 운영되며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집을 떠나 지낼 수 있음. 인종, 계층을 초월하여 모이며,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함.
 - 도입 배경 : 영국 보수당에 의한 국가봉사단(National Citizen Service, 이하 NCS) 도입은 자유민주당과의 논쟁에서 살아남았으며 보수당 정부의 정책 아젠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음. 2005년 보수당수 선거 때부터 카메론이 들고 나왔던 정치적 이슈였음. NCS는 카메론 보수정당의 중요한 '큰 사회 the Big Society' 정책의 일부로서 자원봉사와 시민참여를 촉진함.

- 향후 과제 : 재정적 안정성, 프로그램의 구체적 성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문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자원봉사의 성격과 본질의 문제 등

o 그 외 청소년 사회활동 캠페인과 공무원 자원봉사활동도 추진(월1회 모든 공무원이 최소 년 1회 하루 봉사)

11)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은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지역센터들은 시민사회청이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발됨.

12) 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It, <http://www.do-it.org.uk>)는 순수 민간단체(YouthNet)이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연계, 자원봉사센터 검색, 해외자원봉사 기회까지 통합되어 있음. 백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백만건의 자원봉사 기회가 리스트업 되어 있음. 영국 국무조정실과 민간 Oracle, Volunteering England, BAA, BIG의 지원을 받고 있음.

13) Queen's Award for Voluntary Service : 매년 6월 2일 영국 여왕에 의해 수여되는 자원봉사 대상으로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음. 2인 이상의 단체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수상그룹은 여왕이 직접 싸인한 증서와 크리스탈 기념품을 받고 왕실 가든 파티에 초대됨.

14) 2012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자원봉사가 좋은 유산이 되어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15년 선거를 앞두고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느냐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지금의 자원봉사 정책은 유지될 수도 바뀔 수도 있음.

3. 영국시민단체협의회(NCVO)

1) 협의회(사무처) 현황 :

- 사무총장 : Sir Stuart Etherington
- 이하 5개의 부서(공공정책,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 기획·총무과 1,2)로 구성, 6개의 팀으로 협력함.
 - Consultancy team (컨설팅)
 - Europe and International team (유럽 및 국제협력)
 - Membership team (회원관리)
 - Parliamentary and Media team (의회, 미디어)
 - Policy and Research team (정책, 연구)
 - Volunteering team (자원봉사)
- 1919년 영국사회서비스협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s)라는 명칭으로 처음 창립됨.
- 2013년 1월 Volunteering England가 협의회로 통합되어 자원봉사 부서가 별도로 생겨남. IVR(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는 자원봉사연구소)은 자원봉사 부서에 속해있음.
- 2012년 기준 8,939,000 파운드 수입 규모 (한화 약 63억 원 규모)

2) 협의회 회원 현황 및 거버넌스 구조 :

- 회장 : Baroness Grey-Thompson DBE
-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 9명은 회원에서 선출, 3명은 전문성 등을 위해 초빙.
- 50명으로 구성된 회원모임(Members' Assembly) : 1년에 2회 정규 회의가 있음. 회장은 이사회의 회장이 맡음. 10명은 회원모임에서 선출, 40명은 10개의 분과에서 회원들을 통해 선출. 회원들의 가치와 입장을 대변하고 분과별 이슈를 위해 일함.
- 회원수 : 1만개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 전체 영국 시민단체수의 3분의 1에 해당.

3) 영국자원봉사 현황 :

- 2012년 기준 22.7백만명이 적어도 1회 공적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Community Life Survey에 의하면 공식자원봉사 참여

을 44%). 고용상태, 나이, 인종, 지역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임. 현재 영국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관측되는 대상은 영국의 남동부와 남서부, 동부에 거주하는 35-49세 직장 여성임.

- 자원봉사 경제적 가치 (영국) : 한달에 1회 자원봉사하는 인구는 10.6백만명이며, 이는 19.4백만 파운드(1.1백만 정규직 노동자의 생산 가치)의 가치 창출에 해당함(시급 중간값 기준).
- 영국 전체인구의 33%가 시민활동에 참여하는데, 이중 90%는 자원봉사를 하며, 80%는 기부를 한다고 보고됨.

4) 자원봉사의 정책적 환경 :

- 영국은 법에 자원봉사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용인된 자원봉사의 정의는 무급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로 이것은 환경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지향함.
- 카메론 수상에 의해 시작된 "Big Society" 아젠다는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Big Society안의 이니셔티브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
 - 미국 모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Community Organizers (community fountains, community activism).
 - Community Rights : 문을 닫게 되는 공공건물을 커뮤니티에서 사들여 이용함. (우체국, 도서관, 학교 등이 정부에 의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커뮤니티에서 사들여 운영) .
 - Neighbourhood Planning : 때때로 Urban planning이라고도 불리며 local community에 의해 운영.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증가하고 있음.
 - Mutualization of public services(공공서비스의 상호부조) : 정부에 의해 장려되며 public sector 안에서 부서 간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
- 최근 이루어진 유관 법률 제정이 자원봉사에 갖는 함의 : 관료적인 번잡한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며,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장애물을 제거해 주려는 의도
 - 보편적 신용(Universal Credit) 법률 개정 : 구직자들의 일자리 찾기

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 장려, 구직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님. 구직자들이 universal credit을 요구하려면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고 혜택을 받기위한 요구사항 중 한 가지가 Job center에서의 구직활동 증명임. 예를 들어 일주일에 35시간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35시간의 일은 17시간 30분은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머지 17시간 30분은 일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 시스템은 job center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하지만 옛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위험사항은 있을 수 있고 그 위험사항이 자원봉사활동이 혜택을 위한 요구사항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임. 그래서 이 위험사항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누군가 혜택(benefit)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이 아님. Job center에서 인정해 주는 자원봉사 활동은 미래를 위한 기술 습득이 될 수 있음. 하지만, 나쁜 예로 자원봉사를 통해 기술 습득을 하고서 그것 기술을 이용해 일자리를 찾는 대신 또는 자원봉사를 중단하고 단순 업무를 하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함.

- Changes to the Vetting and Barring System : Vetting and Barring System은 새로 도입된 단일 시스템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 이것은 한번등록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그 고유번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 범죄기록을 조사할 수 있음. 과거방식은 내무부에 양식을 적어 제출 후 이것을 다시 경찰서로 보내는 등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개선하여 한번에 간단히 범죄 기록을 조사할 수 있음.
 - Asylum and immigration rules
- 공공 서비스 개혁으로부터의 도전 : 공공부문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원봉사자들로 대체되는 일이 발생함. 한 예로 2011년 Southampton의 지방의회(local council)에서 그 지역의 몇몇 도서관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도서관의 직원들을 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하는 일이 있었음. 지방의회 등이 예산을 감축하는 일은 점점 더 많이 발생되어질 것이고 예산

감축에 따라 각각의 기관들의 수입도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을 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하는 일이 더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것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할 것임.

- 2012년 런던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의 유산 : 2010과 2011년에 비해 2012 올림픽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 증가.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 비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직원고용 대비 더 많았다는 점도 개선해야할 부분임.

5) 자원봉사자 관리와 관리기준 :

- 모든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를 지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o 강화된 자원봉사자 관리와 프로파일
 - o 모범사례와 유용한 자원으로 뒷받침된 효율적 자원봉사 관리
 - o 지방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강력한 자원봉사 인프라
 - o 자원봉사 경험의 중요성
- 전 범위의 기관에 도달하기(전범위의 기관과 소통하기)
 - o 작은 기관과 커뮤니티 그룹 지원
 - o Social media and SNS를 이용하여 On-line platforms을 만들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
 - o 비공식적이고 아래에서 위로향하는 인식전환의 관점에서 명확한 역할 찾기

6)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 정책의 장기적 과제 :

- o 중요한 문제점들을 만드는 경제 환경(예산삭감 등)에 대응
- o 경계가 흐려지는 영역들 간의 구별 필요
- o 민-관 과 자원봉사 부문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깊이 간직하기 위한 기회
- o 자원봉사는 그것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방법 안에서 개발을 필요로 함
- o 법적으로 보다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이끌어낼 필요
- o 문제(발생되는 문제점들)는 자원봉사의 국가적(국민적) 문화를 구축

7) NCVO와 정부의 관계 :

- NCVO는 정부(Office for Civil Society)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짐.
- NCVO는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낮아 졌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정부는 6개의 전략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NCVO는 그 중 하나임. 지난 4년간 정부의 NCVO에 대한 funding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내년(2014)에는 정지될 것임.
- 향후 정부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협의회는 여전히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이고 정기적으로(한 달 혹은 두달에 한번) 미팅을 가지며 정책 이슈들을 공유함. 협의회는 독립적 기관이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분야를 대표하면서 때때로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에 대항하여 강한 로비를 할 때도 있음.
-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대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함. NCVO는 시민사회, 자선단체 등 우리와 관련된 정책(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로비를 하기도 하고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민사회 역할에 중심을 잃지 않고 있음
- COMPACT는 여전히 진행 중이나 현 정부에 의해 많이 축소됨. NCVO도 COMPACT에 초점을 맞춰 일하고 있지만 업무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전 정부는 정부와 자원봉사분야 사이의 더 많은 파트너십 관계와 더불어 COMPACT을 발전시켰음. 전 정부의 전통은 더 큰 국가 역할을 지지하는데 있음. 현 정부(Big Society)는 국가가 방법을 찾기를 원하면서도 자원봉사 분야를 통해 시민사회를 진흥시키고자 함. 그래서 COMPACT의 진행정도나 활용빈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임.
-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 되는 이유는 관료적인 번잡한 절차를 줄이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기술과 잘 관리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인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개개인 스스로 자원봉사의 더 많은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임.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스스로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알리는 일들이 가능 할 것이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10년은 갈 것이라 생각함. 모든 자원봉사의 효과는 정말 중요하고 현 정부는 4년 동안 자원봉사를 장려 중임.
- Big Society는 개별 커뮤니티(Individual communities)로 된 big society를 발전시키길 원함. 이것은 혼란스러운 접근법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도 현대 그들의 Big Society에 대한 학계나 현장의 정치철학적 비

판에 민감해진 상태임. 시민사회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비판적으로 호소하면서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총리의 정치적 입장은 지지함.

- 많은 자금이 공공서비스와 자원활동 영역에 제공되어 지고 있고 정부는 자원봉사와 지역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아직 자금제공은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매우 부족함. 정부는 정부보조금 외 재정의 다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단체들이 자금조달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는 3-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함.

8) NCVO와 Volunteering England의 합병 :

- Volunteering England는 자금조달에 있어 중앙정부에 심하게 의존적이었고 정부 지원 삭감에 직면하여 조직을 축소하면서 'National Agency for Volunteering'로 변모하거나 NCVO로 Volunteering England가 합병해 들어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음.
- NCVO는 훈련지원, 컨퍼런스, 다른 자선단체들의 임대료가 주 수입원이었고 또한 회원들의 연회비도 있음. 그래서 NCVO는 이 나라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관임. 그래서 NCVO와 합병에 관해 자주 대화와 협상을 하였고 협상의 핵심은 Volunteering England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인가였음. 올해(2013년) 1월 합병함.
- Volunteering England는 NCVO의 이사단체로 일을 하였고 이것은 NCVO의 관리방식에서 자원봉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었음. Volunteering England는 NCVO안에 자원봉사에 초점을 둔 새로운 부서 (Volunteer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를 만들게 됨.
- 합병 후 합병된 기관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미팅을 계속하고 있고 자원봉사는 NCVO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요소가 되고 있음. NCVO는 과거에도 자원봉사 분야와 자원봉사 기관들을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옹호하고 지지할 것임.
- 통합을 계기로 NCVO 안에 자원봉사를 위한 별도의 부서가 생긴 것은 바람직했다고 평가됨. 이전에도 자원봉사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내부에서 자원봉사의 위상이 올라감.
- 단지 재정적 제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더 크게 바라보았을 때 NCVO에서도 이제 자원봉사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

졌고 영국정부 또한 자원봉사에 중점을 두며 개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영국에서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자본 구축, 인적자본 구축, 민주주의에 관한 자원봉사의 가치 인식 때문임.

9) 정부정책(Big Society)가 복지영역에 미친 영향 :

- Big Society는 자원봉사 분야와 민간부문이 함께 더 많은 것들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임. 그것은 모두 더 큰 사회로의 성장에 관한 것임.
- Big Society 개념의 구호(tag line)는 단지 안정적 상태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큰 국가에서 큰 사회로 성장시키는 것을 원함.
- 민영화로 인해 계약 환경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Big Society의 문제는 많은 계약들임. 큰 회사나 단체 등은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음. Big Society는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지지를 제공하는 작은 커뮤니티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 왜냐하면 계약하는 환경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것은 작은 기관들(small organizations)들은 제외된다는 의미로 드러나고 있음.

10) NCVO의 당면 과제 :

- 영국 정부의 Big Society에 의한 시민단체 재정 지원 삭감 대책 마련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대대적 예산 감축에 대한 대안 구상
- 시민단체 지원 정책이었던 COMPACT이 정권의 교체마다 불안정하게 실행됨에 따라 법률이 아닌 협약 형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 대두

4. 영국자원봉사연구소(IVR)

1) 연구소는 영국시민단체협의회(NCVO)의 공공정책부서 내 세 개의 팀 중 하나로 예산은 올해의 경우 약 35,200 파운드임. 1997년 소규모로 설립되어 조직은 거의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수입은 해마다 증가 추세였음. 최근 수입원은 정부보조금이 줄고 자문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는 경향임.

2) 대정부 파트너십은 핵심적으로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의 시민사회청임. 그러나 사업에 따라 시민사회청 외 다양한 정부중앙 부처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보건부, 환경부, 국제개발부(자원봉사사업 평가), 내무부(자원봉사자 신원조사 시스템)와 협력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정부 모든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나 특히 앞서 언급한 부처들은 다른 부처 대비 자원봉사에 관심이 더 많은 부처들로서 최근 함께 한 연구들이 있음. 가장 최근은 내부무과 국제개발부가 함께 일을 함.

3) 학계와의 협력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기반을 제공함으로 연구소의 대외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임. 현재 세 개의 대학과 연구 사업을 진행 중임.

- Lancaster University : Volunteering and end of life care 프로젝트
-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 Northumbria University of Newcastle

4) 지역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은 현재 300개의 자원봉사센터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며 잉글랜드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도 포함함. 1년 단위 조사를 진행 중임.

5) 연구소는 현재 다섯 차례 자원봉사 국가조사에 관여하였음. 첫 국가 조사를 1981년 연구소가 주도하여 시작함. 가장 최근 2007년에는 정부 주도로 국가사회조사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Social Research)에서 실행했고 이 때 연구소가 함께 협력함.

6) 영국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는 지역생활조사(Community Life Survey)가 가장 수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001~2011년까지 실

행되어 온 시민조사(Citizenship Survey) 2012년 시민조사(Citizenship Survey)가 새롭게 지역생활조사(Community Life Survey)로 소개되었는데 이 조사는 국무조정실에 의해 수행되었음. 시민조사는 2001~2011 매년 시행됐던 것으로 내무부 주도로 수행되었으나 2011년 이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한편, 자원봉사자 프로필이나 동기 등은 2007년 국가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음.

7) 현재 진행 중인 주제별 연구조사 프로젝트는 18개의 크고 작은 연구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호스피스 자원봉사 (Volunteering and end of life care : Volunteering in Hospice)
- 장기 프로젝트로, 런던 북쪽의 Newton지역의 박물관과 함께 하고 있는 연구사업 :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직원들의 자리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 Micro Volunteer Project : 짧은 시간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개념에 관한 프로젝트(예를 들어, 5분 자원봉사)

8) IVR이 진단하는 자원봉사 정책의 흐름과 과제 :

- 자원봉사 정책의 영향력의 핵심은 자금의 영향력, 어디로 자금이 투입되는지에 있음. 전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청소년 자원봉사(Youth Volunteering)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젊은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정책과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따라서 많은 정책이나 연구조사들이 젊은이들의 자원봉사에 관해 이루어짐. 또한 자원봉사와 취업(volunteering and employment)에 관한 정책도 중요한 부분임.
-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자원봉사는 요즘 영국 정책의제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과거 10년 동안 자원봉사는 공공정책 의제로 옮겨왔고 그동안 정부는 각각 다른 정치적 색깔을 띠었으며, 전·현 정부 모두 자원봉사에 많은 지지를 해줌. 자발적 행동측면에서, 자원봉사는 시민사회를 돕기 위해 필수적인 것임. 정당은 사회문제를 풀기위해 시민사회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시민사회의 활동이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함. 그러나 자원봉사는 무료이고 재정난으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유지하기 힘들 때 자원봉사가 그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오점이라고 봄.

- 9) 자원봉사 영향력 측정 도구(Volunteering impact assessment toolkit) :
- 이 도구의 주요목적은 작은 기관들도 연구평가영향평가(research evaluation impact assessment)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또한 함께 더 큰 데이터를 모으고 큰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림. 기관의 요점은 도구를 선택하고 그것을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또한 자원봉사의 전략적 개발의 측면에서 도구를 사용함.
 - 연구소의 역할은 이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장기적인 경향성 조사를 하지는 않고 많은 기관들을 위해 평가들을 구축, 이것을 이용하여 연구소의 다른 연구들에는 활용함.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기관들을 연계하고 있으며 많은 기관들이 도구를 구입하여 사용 중임.
 - 도구의 활용과 보급의 이슈 : 핵심은 왜 연구조사를 하고 영향력 평가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연구조사를 좋아하지 않음. 비용과 시간,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도 있음. 왜 영향력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가 혹은 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기관들 또는 다른 분야의 기관들과 함께 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함. 이것은 일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연구조사를 하는 것에 관한 것임. 또한 이것은 이런 기관들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사람들은 영향력 조사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임.
 - 도구의 유용성 : 어떤 기관이 도구를 이용했을 때 그들은 자원봉사 그룹들을 모으고 미래를 위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발견하게 됨. 만약 어떤 기관이 연구조사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자원봉사자의 영향력(Impact)을 개선하는 것을 더 좋게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실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음. 이 도구를 사용하는 기관들과는 연구소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장점도 발생함.
 - 향후 과제 : 좋은 연구조사의 예는 정책 개선과 자원봉사 실천에서의 개선 둘 다를 가진 영향력의 연구라고 생각함. 이것은 연구평가영향평가(research evaluation impact assessment)의 최고의 가치측면에서 매우 도움 될 것임. 연구조사는 매우 느리고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연구평가의 가치를 이해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병행해야 함. 연구소는 사람

들을 돕는 도구 출판 촉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으며 사람들이 왜 도구를 사용하고, 왜 이것에 관여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가고자 함.

10) 자원봉사 영향력의 구조 (Volunteering impact assessment toolkit) :

	물질적 자 본	경제적 자 본	인 적 자 본	사회적 자 본	문화적 자 본
자 원 봉 사 자	자원봉사자 가 받은 서비스나 지원	실비, 훈련비용, 향후 고용기회	개인 인성, 역량, 기술, 건강 개발	네트워크, 우정, 신뢰	자기 정체성 이해, 문화를 통한 가치 표현, 타인의 문화와 이해에 대한 존중
기 관	자원봉사자 들에 의해 기관에 제공된 물질과 서비스의 양과 질	기관에 대한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비용	직원들의 개인, 직무 역량 개발, 조직의 역량 개발	직원 자원봉사 가능성, 지역과의 연계 정도	문화적 다양성이 반영된 서비스, 조직의 다양성
피자원 봉 사 자	피자원봉사 자들에 제공된 물질과 서비스의 양과 질	무료서비스 에의 접근성, 경제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인적 기술, 정신·육체적 건강, 수혜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삶의 건강성	네트워크, 우정, 신뢰, 사회적 활동과의 연계	소속감과 문화 참여, 타인의 문화 이해
공동체	물질과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	공공 서비스에의 투자 가치, 고용 증가, 반사회적 행위 감소	기술 증진, 생산적 일, 시민들의 건강 증진	네트워크, 신뢰, 참여 증가	문화적 생활, 개인 정체성 표현 증가, 타인에 대한 관대함 증가

IV. EU 및 영국으로부터의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1) EU 회원국과 영국의 경우 모두 자원봉사 영역이 전체 시민사회와 연결되어 검토되고 전체 시민사회 틀 안에서 협력이 시도되고 있음. 한국의 시민사회가 영역별로 분절되어 있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오고 있는 바, 자원봉사 정책이 시민사회적 관점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원봉사계가 시민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하는 협력의 노력이 필요함.

2) 국가마다 맥락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 인프라와 법률 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이미 수립된 법률과 제도가 법률 제·개정 시기 이후 변화되어 온 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환경에 적실한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3) 세부적으로 향후 검토되어야 할 정책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 정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시민사회를 포함한 자원봉사 환경 변화, 그 안에서의 자원봉사 변화에 대한 검토 위에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실행** : 현재 진행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에서 이러한 변화 맥락을 잘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시민사회 담당 정부기구** : 영국 시민사회청과 같은 시민사회 담당 기구가 별도로 설치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모두 있을 수 있으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들이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민간단체들의 자원 다각화 지원** : Big Society의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시민단체들의 자원 다각화 지원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며 정부가 시민단체들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간재원을 발굴하는 적극적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관계** : Big Society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치철학의 기반

이 뚜렷한 정책으로 자원봉사를 전략적 수단으로 선택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음. 한국의 자원봉사 정책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가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2. 민간기구에 대한 시사점

1) 영국 NCVO는 그간 한국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회자되었으나 조사 결과 성격상 '자원봉사'를 한 섹터로 하는 전체 시민사회 플랫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2) Volunteering England가 NCVO에 통합된 사례는 영국의 전체 시민사회 정책 변화의 영향이었음. 영국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이 변화는 영국 정부의 공공개혁과 경제난 모두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원봉사계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단체들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 적응의 노력을 하고 있음.

3) 세부적으로 향후 검토되어야 할 정책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 관계성 강화** : 분절성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존재 이유가 보다 명확해지기 위해서라도 센터가 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이 제안하는 것처럼 특히 풀뿌리단체들과 센터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으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센터가 시민사회의 일부가 되고 시민사회가 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시민사회 여타 영역간 협력 강화** : 2013년도 자원봉사 컨퍼런스에서 이미 시도되었고 이러한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봄. 협의회가 시민사회 다른 유관 영역들과 보다 협력하고 단지 외연적 협력만이 아니라 자원봉사가 시민사회 전체, 그리고 세부 영역들과 어떻게 내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사업과 사업의 성과를 통해 구현해낼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 영역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 제고** : 시민사회의 여타 다

양한 영역들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EU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시민에 대한 태도로서 시민단체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봄.

3. 연구와 지식확산에 대한 시사점

1) 영국자원봉사연구소(IVR)은 다양한 정부기관과 대학들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로 시의적절한 대응과 이슈 선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

2) 그간 한국의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제기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사업들이 실행될 필요가 있음.

3)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다음을 제안함.

- **자원봉사연구소 개설** :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정책을 통해 자원봉사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연구자 지원** : 자원봉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하는 연구자 그룹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내 연구와 지식 공유 기능 강화** :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내부적으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지식을 생성·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 연구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제고** : 시민사회, 비영리섹터 연구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다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마련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협의회와 대학의 공식적 협력** : 한편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연구자 개인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대학 차원으로 서로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끝.

2013 하반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글로벌협력사업
한-EU자원봉사 해외 조사 사업
(EU·영국 자원봉사 정책 및 현황 조사)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인 김 순 택
발 행 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편 집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대외협력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3 (140-821)
전 화 02-737-6922
팩 스 02-737-6923
홈페이지 <http://www.vkorea.or.kr>
인 쇄 C&B 바인더랜드